

웹툰 원작 바탕 둔 대중 문화와의 만남

국립중앙도서관, 13일~내달 31일까지 '웹툰의 모든것...' 을 웹툰 체험전

웹툰 원작은 영화(19편), 드라마(36편)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 이제는 게임(19편), 애니메이션(17편), 음원(131개), 공연(79편), 음식·의류·생필품 같은 대량 소비재 상품(46종), 정책과 기업 홍보(149편) 등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제 어디에서나 웹툰 원작에 기반을 둔 대중문화를 만날 수 있다. 웹툰과 연계된 상품을 소비하는 웹툰 유니버스 속에서 살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이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디지털도서관 전시실에서 '올 웹툰 체험전: 플랫폼'을 연다. 저작권 신업의 총아로 발돋움한 웹툰 플랫폼과 웹툰 IP(지식재산권)에 주목하는 지리다.

주전시 '플랫폼(PLATFORM)', 소전시 '숨은 명작 웹툰, 독서체험, 나도 웹툰 작가 매칭데이·플랫폼 타임, 웹툰작가의 만남'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웹툰 플랫폼의 성장 흐름과 현재 웹툰 IP 현황, 웹툰 IP의 문화적 저변 현상을 이해하고, 대표적 웹툰 플랫폼 7개



사의 운영 방식과 서비스 특성을 살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준비 단계부터 방대한 웹툰 IP의 데이터를 조사, 매겨진 구성을 전시에 접목해 정보 전달의 체계성을 높였다"고 소개했다.

주전시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곳에서 활용되는 웹툰의 세계를 그대로 보여준

다. 총 10개 분야(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음원, 상품, 홍보용 웹툰, 이모티콘 등)의 웹툰 IP 데이터를 공개한다. 웹툰 IP 분야별로 최초 작품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활용된 내역과 추이를 일목요연하게 전시한다.

또 웹툰 IP를 유발하는 핵심 동력인 웹툰 플랫폼 7개(네이버, 카카오, 미스트롯, 피카툰(만화가족), 애니맥스플러스, 코믹큐브, 담뽀 등)의 현황과 대표 IP를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VR 시대를 대비하는 웹툰 가상현실(VR) 체험, 웹툰은 세로 스크롤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가로 스크롤' 형태의 파노라마 웹툰 기술을 구현한다.

소전시 '숨은 명작 웹툰'에서는 각 웹툰 플랫폼에서 추천하는 명작이지만 주목받지 못한 작품들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독서체험' 공간에서는 웹툰 대표작 37편을 행사 기간 동안 디지털 도서관 체험형 컴퓨터에서 무료로 직접 즐길 수 있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웹툰작가를

꿈꾸는 예비작가의 등용 기회를 제공하는 '매칭데이'와 '플랫폼 타임', 사전행사 12일 열리는 '나도 웹툰작가' 행사는 사전 공모를 통해 신청된 79명의 예비 작가와 6개의 웹툰 플랫폼 편집부와의 만남이 이뤄진다.

자신의 작품을 평소 만나기 힘든 웹툰 편집부와 직접 만나 데뷔의 여건을 타진할 수 있는 지리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도서관은 기대하고 있다.

10월5일 열리는 '웹툰 플랫폼 타임'은 참여하는 웹툰 플랫폼 편집부에서 직접 자신의 서비스를 소개한다. 관심 있는 작가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웹툰 편집부와 소통할 수 있다.

이밖에도 탐아부(9월24일), 김양수(10월8일), 후렛사(10월22일), 광백수(10월29일) 등 유명 웹툰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됐다. 작가가 참여해 작품 속 숨겨진 에피소드를 이야기하고 질의 응답을 통해 작가와 작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지리다. 올 웹툰 체험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



조계환 작가 '자넬'

은은함 묵향으로 연꽃 피어나다

한국화가 조계환, 15일까지 개인전

한국화가 조계환이 은은한 묵향이 배어나는 연꽃 신작들을 선보인다.

'자넬'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연꽃을 통해 더러운 곳에 머물러있어도 이에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하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정화한다는 '처연상정'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작가는 혼탁한 진흙에서 세월에 풍상을 겪고 고고하게 핀 연꽃을 통해, 내면으로 응축된 정감의 아름다움을 의적의 조형의 밝음으로 단아하게 표출한다.

그는 연꽃의 어느 한 측면을 음모조음해 일필휘지의 호방함 대신 짙고 반듯한 필선들을 잇대어 사용하여 담담히 그려냄으로써 작품에는 소박하고 소소한 아름다움이 묻어난다.

또 작품에는 한국 채색화 특유의 능밀한 색채감각이 두드러져 보인다. 그는 정교하고 치밀한 색채 운용과 음영을 통한 채색으로 한결 더 풍성하고 깊이 있는 꽃을 화폭에 그려낸다.

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전북예술회관 2층 5실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하반기 로컬시네마 후반제작 지원 사업 펼쳐

전주영화제작소, 독립영화 지원

전주영화제작소(구 완산보건소)는 2016 하반기 로컬시네마 후반제작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전주시가 주관하고 (재)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전주영화제작소)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음향바스터링스튜디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영화인 및 독립영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사업에선 전주영화제작소와 음향바스터링스튜디오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디지털 영화영상물의 후반제작지원을 통해 지역 디지털 영화영상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은 디지털 영화영상 관련 연출 감독 및 제작사로 제작 준비되거나 후반작업 진행 예정인 영화영상물(독립 중단편영화, 저예산예술영화, 영상 다큐멘터리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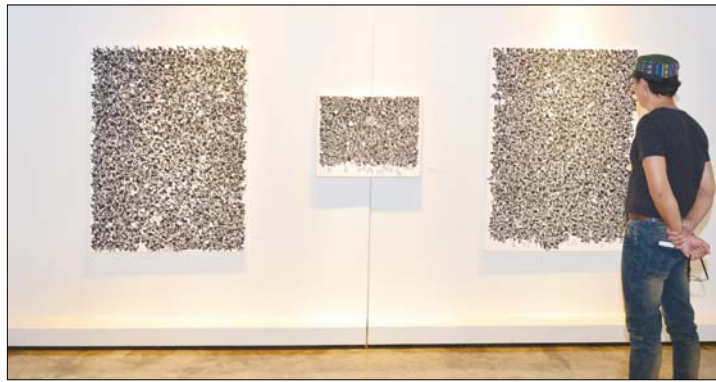
영화와 영상물을 지원한다.

이는 신청인별 1개의 작품만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9일~10월5일이며, 작품은 E-mail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영화영상물 중 총 14편을 선정(촬영장비지원 5편, 색보정&사운드 6편, DCP 3편)하여 후반제작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사업 관계자는 로컬시네마 후반제작 지원 사업은 영화영상 후반제작 시설장비 운영을 통해 지역의 영화제작환경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상문화 다양성 및 새로운 영화제작환경의 구축으로 전주영화영상산업의 브랜드인지도를 제고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및 전주영화제작소 후반제작지원사업 참조하면 된다. 문의 282-1400. /정해은 기자



오프스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미술인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순창군, 옥천미술관 이철량 초대전 개막

내달 23일까지 25점 전시

순창군이 지난 8일 순창옥천미술관에서 한국화가 이철량교수 초대전을 개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10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이화백의 작품 25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철량 교수는 한국미술 오늘의 표상(인사아트센터)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 한국미술작가대상(월간 미술시대)을 수상하는 등 화단계의 중심에서 왕성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작가로 군민들도 모처럼 수준 높은 한국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 날 오프스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를 비

롯한 기관 단체장과 미술인 등 50여명이 참여하여 초대전을 축하했다.

황숙주 군수는 축사를 통해 "이화백은 우리군 출신 화백으로 평생 미술활동을 통해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 주신 분으로 앞으로도 순창미술과 문화발전에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화백은 1952년 순창군 북흥면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이후 1981년 한국현대미술학회(국립현대미술관), 1992년 선묘의 표현-현대한국회화전(호암갤러리), 2015년 80년대 한국미술(전북도립미술관) 등 전국규모의 전시회에 참여했다. 현재는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순창=이왕원 기자

호시탐탐 전북 스토리 공모전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이야기 지원을 발굴하여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공연 등의 콘텐츠로 제작하는 하는 사업이 전개된다.

전북도는 <호시탐탐 전북 스토리 공모전>사업이 (재)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주관 하에 진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공모전은 도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공모분야는 정음 무성서원, 최치원 등 우리 지역의 역사, 자연, 지리, 민속, 구비전승, 인물 등 숨어있는 이야기를 창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방법은 홈페이지(www.jxci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10월17일~10월21일 이메일(storyjb@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우수 창작자 12명에게는 총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대상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함께 콘텐츠를 개발 가능하도록 시나리오를 보장하는 멘토링과 사업화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대상을 포함한 상위 입상자에게는 전북 지역스토리랩 지원사업을 통한 콘텐츠 초기 제작비 지원,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의 창업발전소와 연계한 사업화 등을 통해 스토리가 출판, 방송, 게임 등 여러 콘텐츠 분야에서 활용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정음시의 최치원과 무성서원에 대한 소재를 활용한 창작 스토리에 대해서는 특별상인 '태산선비상'이 수여된다. 공모 결과는 11월28일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전라북도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콘텐츠 산업의 첫 시자인 좋은 스토리는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고부가가치로 이어져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스토리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이 단순 선정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콘텐츠로 제작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피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9월 12일>

▷쥐띠
46년생: 뒷사람의 덕이 있는 운.
60년생: 일적인 능력이 올라가는 운.
72년생: 이성과 함께 일을 도모하면 쉽게 풀린다.
84년생: 구설수, 시비가 따르는 운이니 매사에 말과 행동을 주의

▷소띠
49년생: 처음은 어려우나 나중에는 잘 풀리니 포기하지 마라.
61년생: 컨디션도 좋지 않으니 조절을 잘해야 하는 운이다.
73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운이다.
85년생: 혼자서는 어려우나 함께 하면 쉽게 풀리는 운이다.

▷호랑이띠
50년생: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운.
62년생: 정신이 맑지 않으니 생각지 못했던 실수를 범할 수 있다.
74년생: 말로 인한 화를 주의하라.
86년생: 힘들었던 사람에게는 사모로 인해 해결된다.

▷토끼띠
51년생: 자신의 예상보다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길운.
63년생: 천운이 따르는 운이니 겸손하라.
75년생: 정신적으로 놀랄 일이 생기니 매사에 주의.
87년생: 급하게 서두르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사람이 생기는 운.
64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성가신 일들이 발생.
76년생: 뒷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
88년생: 의욕이 앞서서 운이나 뒷 사람에게 실수 할 수 있으니 주의.

▷뱀띠
53년생: 중요한 약속은 점심시간을 활용하라.
65년생: 소외된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면 좋은 일이 생기는 운.
77년생: 혼자서 묵묵히 해결해야 하는 운이다.
89년생: 눈앞의 결실을 바라고 행동하지 말고 크게 생각

▷말띠
54년생: 금전으로 인해 고민할 일이 생기니 미리 대비.
66년생: 연장자의 귀인이 나타나지는 운이다.
78년생: 작은 일에 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운.
90년생: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도 좋은 운.

▷양띠
55년생: 대인관계, 외부적인 상황, 내부적인 상황이 막혀 있다.
67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는 좋은 운이니 금전운은 불리.
79년생: 소화가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91년생: 타인과 대립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해결하라.

▷원숭이띠
55년생: 문서를 주고받거나 서류를 정리하기에 좋은 운이다.
69년생: 작은 일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나 큰일은 불가하다.
81년생: 남자는 여자로 인해서 일이 성사되니 동행하면 길하다.
93년생: 시비가 따르는 운.

▷닭띠
57년생: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내부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6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르고 심신을 어지럽게 한다.
81년생: 사람으로 인해 마음상할 일이 생기는 운.
93년생: 원형은 불리하니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개띠
45년생: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울 때.
59년생: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에 주의하라.
71년생: 동기과 일을 도모하면 돈 잃고 사람 잃는 운.
83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돼지띠
47년생: 소심했던 사람과의 관계회복에 힘쓰면 좋은 운.
59년생: 기운이 왕성하지 못하니 내실을 다져라.
71년생: 금전운이 불리하다. 불필요한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
83년생: 뒷사람의 도움이 따르니 위험했던 실태라 풀리는 운.